

캔버라 한인성당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 견
421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216 (십자가에 제헌되신)	498 (예수여 기리리다)	270 (로사리오의 기도)

입당송 - 시편 105,3-4

주님을 찾는 마음은 기뻐하여라. 주님과 그 권능을 구하여라. 언제나 그 얼굴을 찾아라.

제 1독서 | 예레미야 31,7-9

화답송 |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좌)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우)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좌)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겍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우)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 2독서 | 히브리서 5,1-6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 주셨네.

◎ 알렐루야

복음 | 마르코 10,46-52

영성체 후 묵상 |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굳은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응답하십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다고 잠자코 있지 말고 용기를 내어 다시 외칩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Today's Gospel - Mark 10,46-52

As Jesus left Jericho with his disciples and a large crowd, Bartimaeus (that is, the son of Timaeus), a blind beggar, was sitting at the side of the road. When he heard that it was Jesus of Nazareth, he began to shout and to say, 'Son of David, Jesus, have pity on me.' And many of them scolded him and told him to keep quiet, but he only shouted all the louder, 'Son of David, have pity on me.' Jesus stopped and said, 'Call him here.' So they called the blind man. 'Courage,' they said 'get up; he is calling you.' So throwing off his cloak, he jumped up and went to Jesus. Then Jesus spoke,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Rabbuni,' the blind man said to him 'Master, let me see again.' Jesus said to him, 'Go; your faith has saved you.' And immediately his sight returned and he followed him along the road.

그 무렵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코를 떠나실 때에, 티매오의 아들 바르티매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잡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그는 겹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먼 이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오늘의 묵상>

독서와 복음을 함께 읽다 보니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1독서에서 “주님, …… 구원하소서!”(예레 31,7)라고 외치라고 되어 있는데, 복음에서는 바르티매오가 과연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마르 10,47)라고 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이가 그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였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그를 꾸짖었던 이들은 그가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였고, 또 어쩌면 너무 많은 이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며 외쳐댔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상대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렇게 외치며 찬양하여라.”(31,7)라고 말합니다.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것이 자신을 도와주시기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찬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에, 그분께 구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분을 향하여 외칩니다. 주님께서 는 당신 백성에게 그러한 신앙을 바라셨습니다.

복음에서도 바르티매오는 예수님께 자비를 청하며 외쳤는데 예수님께서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마르 10,52)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꾸짖는데도 그가 외쳤던 것이 그의 찬양이고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불러오라고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그가 자신의 입으로 치유를 청하게 하심으로써, 그의 믿음을 드러내십니다. 바르티매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 주실 수 있음을 의심 없이 믿고, 이로써 그를 꾸짖던 사람들 앞에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다시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인 희망의 근거 - 하느님 사랑

루카복음 16장엔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가 있습니다.(16,19-31) 평소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던 부자와 그 집 대문 앞에 ‘종기 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는’ 거지 라자로가 등장합니다. 각자 지상 삶을 마친 후 두 사람의 상황은 반대로 바뀝니다. 라자로는 아브라함 곁에 머물고, 부자는 저승 불 속에서 고초를 겪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십니까?

먼저 부자는 죽은 다음 왜 비참하게 됐을까요? 사는 동안 거지 라자로를 돕지 않아서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에 거지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모두 죽은 다음 저 부자처럼 저승의 불 속에서 고초를 겪을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은 부자들을 미워하십니까?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루카 18,25)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는 모든 부자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하느님께 인색한 사람들, 오직 자신만 아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예수님은 평소 제자들과 복음을 선포하며 다니셨고, 그 많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자기 위해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으며, 당연히 당시 부자들의 도움도 여러 번 받으셨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복음 말씀에는 그 부자가 어떤 악행을 저지르거나 죄 지었다는 증언도 없습니다. 아마도 부자가 죽은 후 벌받은 이유는

사는 동안 하느님을 찾지 않고, 하느님 없이도 살만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 추정됩니다. 딱히 큰 죄 짓지 않아도 하느님 없이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은 나중에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라자로는 왜 구원을 받았는가?’입니다. 복음에는 라자로가 구원받기 합당한 행동을 한 정황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 비유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희망과 약속을 상징합니다. 사는 동안 어려운 일이 참 많고, 때로는 삶이 버겁습니다. 하느님이 계신데 왜 죄 없는 사람이 고통받고, 악한 사람이 편하게 살까요? 왜 하느님을 믿는 우리에게 삶이 이리 고단할까요? 확실한 사실은 하느님께서 지금 우리 처지를 잘 아시고,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나중에 다 갚아 주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던 것처럼, 라자로같이 하느님 믿고 따르는 사람, 고통 중에 사는 사람도 결국 그 품에 안길 것입니다.

“불의가 세상을 덮쳐도 불신이 만연해도 우리는 주님만을 믿고서 살립니다.” 가톨릭 성가 28장의 가사처럼 사는 동안 하느님 믿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결국 복 받을 것이고, 하느님 없이 사는 사람은 결국 벌 받을 것입니다. ‘상선벌악’(賞善罰惡). 가톨릭교회는 이 ‘믿을 교리’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시편 1,1-2)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 (Teresa of Ávila) - 기도에 관하여 (2)>

무엇보다도 기도는 믿음의 실천 행위이다. 기도는 믿음이 숨 쉬고 하느님과 다시 맺어지기 위해 회심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인간적인 행위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그 기도를 통해 한 분이요 동시에 세 분이신 하느님, 하느님의 강생, 인간 예수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믿을 교리에 대한 명시적인 신앙을 드러내야 한다. 성녀는 기도에 대해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바로 그분과 대화하도록 초대했다. 우리가 대화하도록 초대된 상대자는 다름 아닌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시다. 또한 기도는 향주적 사랑에 대한 실천이다. 성녀는 기도에 대한 정의를 통해 모든 기도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를 우리에게 제시했다. 그것은 기도란 하느님 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누는 ‘우정의 교제’라는 것이다. 이는 기도하는 이와 기도의 대상이 되는 분 사이의 상호 인격적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 성녀가 말한 우정의 교제라는 기도의 정의는 무엇보다도 심리적으로 인간적인 대화 구조에 잘 들어맞는다.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원한다는 사실을 자주 고백하고 또 서로의 사랑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성녀의 정의는 기도가 우정 가득한 교제, 특히 생각보다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이 보다 풍요롭게 작용하는 대화임을 뜻한다.



공지 사항

1. 로컬 다문화 미사

(South Belconnen Multicultural Mass)

일시: 11월 3일 (주일), 10:00am

장소: 아란다 성당 (St.Vincent de Paul's)

* 미사 중 영성체 후 묵상곡으로 한인성당 신자분 들께서는 가톨릭 성가 '생명의 양식'을 다함께 부르 겠습니다. 악보는 따로 출력하여 당일 미사 전에 나누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미사 후 식사 나눔이 있습니다.

* 주일 오후 3시, 한인성당 미사는 없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기도>

“저희는 기도, 단식, 자선이라는 무기를 통해, 나아가 성모님 은총의 선물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과 전세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평화의 모후이시여,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폭력과 복수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화해시키시고, 쉽게 부유해지려는 욕망에 눈먼 생각들을 바로잡아 주시도록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온 땅을 당신의 평화로 다스리소서.”



| 미사 참례자 수 |

10월 13일	유아·청소년: 19명	성인: 47명
10월 20일	유아·청소년: 25명	성인: 66명

| 온라인 목주기도 모임 |

화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전례 독서 봉사자 |

이번주 (10월 27일)	양홍석 베드로, 안영규 필립보
다음주 '다문화 미사'	

미사 후 뒷정리 및 예물봉헌 |

이번주 (10월 27일)	마태오반
다음주 '다문화 미사'	

| 우리들의 정성 | (10월 19일 ~ 10월 25일)

봉 헌 금	\$ 440			
교 무 금	\$ 540			
권묘순	김태룡	남궁영근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지영	이재희	장호훈	전인철
정은영	조성희	주정자	최현	

| 기도 지향 |

- * 자녀 출산을 앞둔 모든 부부와 태아들을 위해
- *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
- * 예비신자 - 문서 자매님과 양주영 자매님을 위해
- * 가르멜 수녀원, 성체의 안젤라 수녀님을 위해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